



잉카 도로,
남-북방향



잉카 그릇
(15~16세기)

기념품점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다양한 책, 수공예품, 기념품 및 파차카막신상(神像)의 복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 방문

순례자의 길 특별 체험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최대 15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인당 요금: S/.20.00.

체험 워크숍

건축, 도자기 제작, 선사시대 농업, 수공예 섬유, 잉카 회계 기록 도구인 키푸스(quipus)에 대한 워크숍이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들

가이드 서비스 가능
특별 방문* 가능
예약 링크: reservas pachacamac@cultura.gob.pe

학교 등 교육 기관은 방문
최소 5일 전에 박물관 직원에게 연락이 필요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방문객은 무료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입장료

성인: S/15.00
대학(원)생: S/5.00
60세 이상 노인 및 교사: S/7.50
학생 및 어린이: S/0.00

박물관 위치

Antica Panamericana Sud Km. 31.5, Lurín
전화번호: 3215606

관람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폐관 30분 전 입장권 판매 종료

MUSEO
PACHACAMAC

<http://pachacamac.cultura.pe>



PERÚ Ministerio de Cultura

www.cultura.gob.pe



고고학 유적지

PACHACAMAC

파차카막





아클라와시(Acllawasi),
태양에게 헌신된
처녀들의 집

잉카인들이 도착한 후, 파차카막의 사제들은 잉카의 상징을 받아들였고, 그 시기 모든 신성한 건축물이 갖춰야 했던 잉카 의식 공간인 태양의 신전과 아클라와시(선택받은 자들의 집)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잉카제국 전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걸던 길을 볼 수 있으며, 태양의 신전에서 바다와 섬, 비옥한 루린 계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파차카막 신에 대한 고대 종교적 숭배가 근대의 세뇨르 데 로스 밀라그로스(기적의 주님, 파차카밀라의 그리스도 또는 지진의 주님이라고도 불림) 숭배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변모했을 가능성을 이야기 합니다.

관람 안내

파차카막 고고학 유적지의 방문 코스는 약 3km 길이로, 다양한 건축물과 이 지역의 도시적 구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은 파차카막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작은 아도비(Adobitos) 복합체'에서 시작되며, 리마 문화(서기 200-650년)에 속합니다. 이 건축물은 "책장"이라 불리는 건축기법을 특징으로 하며 작은 직사각형 벽돌을 수직으로 세워 쌓아올렸습니다.

성역 내에는 또 이크마 문화(서기 1100-1470년)의 경사로가 있는 피라미드 16개가 있으며, 각 건축물은 겹겹의 플랫폼과 중앙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 2, 3번의 피라미드가 눈에 띕니다.

텍스타일 디자인
(약 기원전 1000~1300년경)

관람 중에는 전망대에서 파차카막 신이 머물렀다고 하는 건축물 '페인티드 템플'(서기 200-1470년)과 잉카 건축물들(서기 1470-1533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클라와시(또는 마마코나), 순례자 광장, 태양의 신전, 그리고 타우리츨피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양의 신전과 타우리츨피 건물 주변의 돌레길을 따라 이들의 건축적 세부 사항과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 박물관

파차카막 유적지 박물관은 넓은 상설 전시실, 다목적 홀, 상점, 카페테리아, 야외 공간, 그리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보존, 문화 자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전문 인력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적지의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버전의 브로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페루 연수동창회(APEBEKO)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파차카막은 선사시대 1200년 이상 페루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역(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페루 전역에서 '안데스 제의'라고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로 잉카의 성직자와 수장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 페루인들은 파차카막 신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어 두려워 했고, 신이 머리만 움직여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성역에 세워진 웅장한 신전들은 이 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기원전 200년 형성기 시대에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리마 문화 사람들이 정착하여 최초의 건축물을 세웠지만, 당시 이 신전의 영향력은 지역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성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서기 650년, 와리 제국 시대부터였으며, 이때 중앙 안데스의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100년에서 1470년 사이 페루는 지역국가나 영주국가가 발달했는데, 이 지역은 이크마(Ychma)영주가 지배했습니다. 이 때 다양한 종교건축물들과 파차카막 내의 피라미드들을 지었고, 이 피라미드들에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새와 물고기 문양을 새겼습니다.

